



보험연구원
Korea Insurance
Research Institute

보 도 자 료

보도

2020. 4. 9.(목) 조간부터

배포

2020. 4. 7.(화)

책임자

금융제도연구실
김해식 실장(3775-9041)

작성자

노건엽 연구위원(3775-9039)

홍보담당

변철성 수석담당역(3775-911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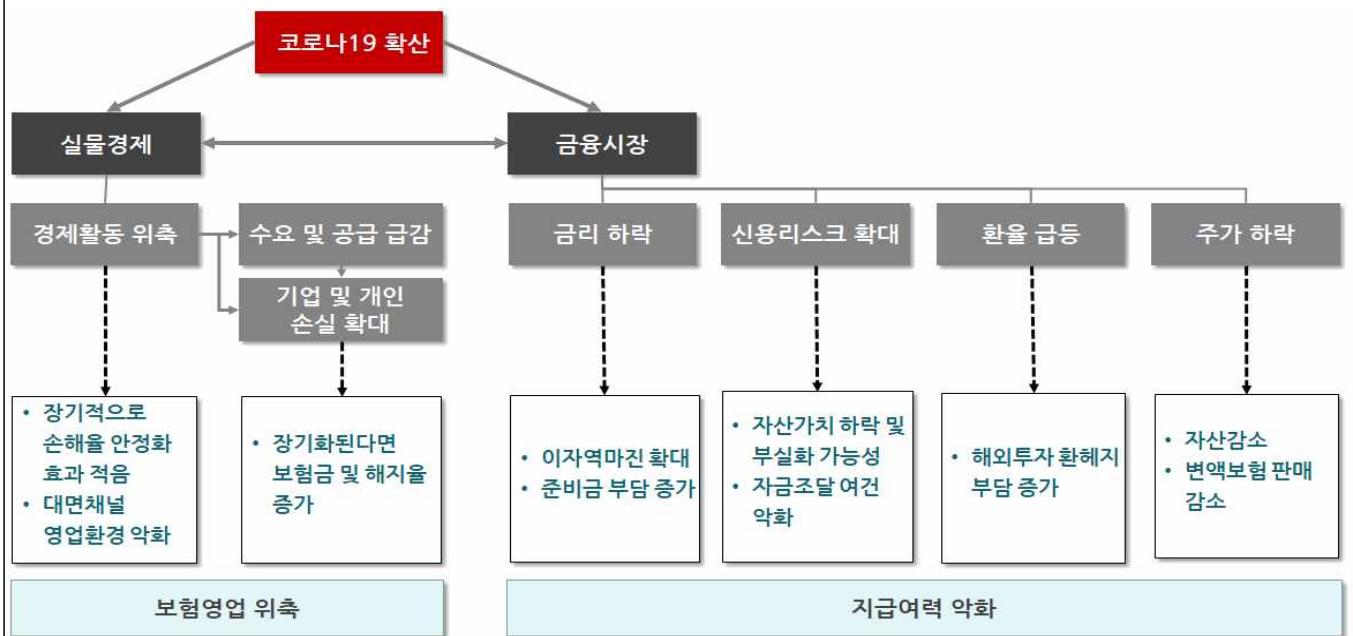
총 3매

보험연구원, 「코로나 19(Covid-19)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」 CEO Report 발간

“ 위험보장 및 실물부문 지원을 강화할 필요 ”

- ☐ 보험연구원(원장 안철경)은 『코로나 19(Covid-19)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』 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(CEO Report 2020-1)
- ☐ 본 연구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을 진단하고, 금융당국 및 보험회사의 대응 과제를 제시함
 -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‘실물경제 부진 →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→ 경기침체’로 인해 보험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함
- ☐ 코로나 19는 과거 SARS, MERS 발생 당시와 비교가 불가하며 향후 전개를 예측할 수 없는 전례없는 사건임
 - 금융시장 변동성은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하나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닌 코로나 19로 인한 실물부분의 비정상 상황으로 변동성이 발생함
 - 즉, 감염병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함
- ☐ 코로나 19 확산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영업은 물론이고 금융시장을 통한 투자영업과 지급여력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
 - 보험회사의 보험료 매출과 보험금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뿐만 아니라 주가, 신용스프레드, 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보험회사의 자산, 부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함

<그림> 코로나 19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



- 2000년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(SARS, MERS 등)은 확산기간이 길지 않아 영향이 미미하였으나 **코로나 19가 장기화된다면 보험금 증가, 재보험사 손해를 급등, 해지율 증가 가능성이 있음**
 - 실손보험 등 건강보험의 사망 및 질병률 급등에 따라 보험금이 증가할 수 있음
 - 이로 인한 재보험사 손해율이 증가하고 원수사의 재보험자산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음
 - 또한 실물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율이 증가할 수 있음
- 2020년 상반기 신계약 실적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, 신종 코로나 확산이 상반기 내에 진정된다 하더라도 **영업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**
 - **(대면채널)** 코로나 19가 2월 말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1~2개월에 걸친 고객 발굴 절차를 거치는 대면채널의 **향후 영업실적 악화가 예상됨**
 - **(비대면채널)** 한편 영향을 덜 받는 비대면채널은 신계약 비중이 작고 판매하는 상품 또한 제한적이어서 **대면채널 대체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**

-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는 보험회사 순자산가치 감소와 신규 투자에 대한 수익률 감소를 가져와 건전성 및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
 - 특히, 장기금리 하락 시 전반적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
- 금융당국은 보험부문에서 ① 위험보장 및 실물부문 지원을 강화하고, ② 극단적인 상황에서 시장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금융안정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함
- 코로나 19로 인해 극심한 충격을 받은 가게 및 기업에 대한 위험보장 및 실물부문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 - 금융당국은 검사 및 감독에 대한 보험회사의 운영 부담을 줄여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
 - 보험회사는 상품 판매 및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개선하여 위험보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함
 -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보험계약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
- 보험회사가 저금리 환경에 대한 강건성을 확보하고 극단적인 대외 충격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정책 대응이 필요함
 - 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코로나 19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 - 향후 도입될 K-ICS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제도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첨부 : CEO Report “코로나 19(Covid-19)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”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<http://www.kiri.or.kr>